

금향로가 차기까지

FEBRUARY 2024

www.silkwavemission.com | info@silkwavemission.com |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2024 CP 가족 수양회 특별호



SWM Web



SWM 후원



유튜브채널



카카오톡채널



SILK WAVE MISSION

SWM USA

후원 안내

단 한번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 한번의 마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이 향한 그 곳에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세워질수 있습니다.



Zelle :finance@silkwavemission.com
Memo : BM



Zelle :finance@silkwavemission.com
Memo : PS



Zelle :cpf@silkwavemission.com

● Check으로 보내는 방법

Pay to the order of:

일반헌금: **Silk Wave Mission**

교회개척헌금: **Church Planting Fund**

Silk Wave Mission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 문의

전화번호: 714-999-8639

일반헌금: **박은경 팀장**(swmacct@swmnet.org)

교회개척헌금: **김호성 팀장**(cpf@swmnet.org)

※ 실크웨이브 선교회는 연방정부에 501(c)(3)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후원자님의 헌금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헌금을 보내실 때 헌금의 목적 및 헌금 영수증 수신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SWM KOREA

후원 안내

단 한번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 한번의 마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이 향한 그 곳에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세워질수 있습니다.



예금주: SWM
메모: 일반현금



예금주: SWM
메모: CPF 현금



예금주: SWM
메모: 지정(목적내용 기입)

문의: 이하영 간사 (lesleylee@swmnet.org / 010-2100-4237)

현금 보내주실 때 꼭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는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세액공제를 위한 현금내역을 매년 1월에 발송해 드립니다.

SWM 선교회에 현금하신 모든 현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aafkanlah dosa-dosa kami
Dan janganlah menganiaya kami

2024 Church Planter Family Retreat

Rest Refresh Recharge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
3박 4일간 CP 가족 수양회가 4년만에 개최되었다.

튀르키예 안탈리아의 미라클 리조트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수양회는 총 276명이 참석하였다.
(CP 56명, CP 가족 113명, 코디 13명, 코디 가족 15명, 강사 5명, 봉사자 65명, SWM USA staff 4명, SWM Korea Staff 5명)

Rest, Refresh, Recharge 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양회는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서 쉬를 누리고 생기를 찾으며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였다. 기도와 찬양, 예배를 통한 회복, 위로, 기쁨의 눈물...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교제를 나누는 3박 4일의 시간은 그야말로 천국의 시간이였다.

먼 곳 까지 시간과 물질을 들여 사랑의 본을 보여 주신 베델교회와 열린문장로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 CP들을 만나기 위해 강사로 섬겨주신 김용훈 목사님, 김한요 목사님, 이진수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CP 수양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본다.

2024년 CP 가족 수양회

Rest, Refresh, Recharge

이재진 선교사(SWM Korea 대표)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CP 가족 수양회가 4년만에 성경의 '앗달리아'의 도시 안탈리아에서 열리게 되었다.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몇몇 CP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CP들이 참여하였고 미국과 한국,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코디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자원 봉사자 분들까지 약 28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3박 4일 동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와 나눔과 섬김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맞본 시간이었다.

"Rest, Refresh, Recharge"란 주제로 열린 이번 CP 가족 수양회 첫날 오전은 미리 도착한 Staff 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 간절한 합심기도를 드린 후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각자 맡은 포지션별로 튀르키예 전지역과 주변 나라들에서 도착하실 분들을 맞이하고 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착 시간이 되어 한 가정씩 맞이하며 사랑의 인사와 안부를 물었고 따뜻한 허그와 대화로 장거리 여행의 긴장과 여독을 풀었다. 풍성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진 후, 첫째 날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고 언어는 달라도 주님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찬양하였고, 김용훈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로 수양회 첫날 저녁, 은혜의 문이 열렸다.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시간도 진행되었는데, 기도와 사랑으로 사역을 준비해 오신 귀한 분들의 섬김으로 첫 만남의 어색함이 단번에 깨어지며 아이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첫날 저녁 집회가 끝났어도 오랜만에 만난 동역자들과의 반가운 대화와 교제는

밤 늦게까지 곳곳에서 이어졌다. 둘째 날 아침, 식당에서 만난 CP 가족들 서로에 대한 인사와 교제들로 인해 아침 식사의 자리는 애찬식의 분위기가 되었고, 오전에는 언어권별 첫번째 모임 - 튀르키예어권, 아랍어권, 페르시아어권-이 진행되었다. 각기 다른 언어로 찬양과 경배가 드러지고 각 언어권별로 세 분의 강사 목사님께서 오랜 사역의 경험과 섬김에서 얻게 되신 귀한 사역과 목회의 가르침을 사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말씀을 듣는 CP들이 집중해서 경청하고 질문과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은 가족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부터는 특별히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열린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준비해 오신 섬김의 사역들이 각 부스별로 진행되었다. 미국에서부터 공수해 오신 재료로 호텔 주방을 빌려 한국음식들을(떡볶이, 라면, 전, 김치, 김밥 등) 만들어서 섬겨 주셨는데 CP 가족들 뿐 아니라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CP 분들 가족 사진을 찍어 즉석에서 인화한 후 예쁜 액자에 담아 소중한 가족 앨범을 만들어 주셨다. 고단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추억의 사진으로 담겨져 선물을 받으니 밝은 미소들과 웃음이 가족들의 얼굴에 퍼졌다.

한 부스에서는 한의학의 진맥, 침 시술을 받으며 아픈 부위의 치료와 돌봄을 받으면 신기해 하기도 하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의료 상담과 진찰, 좋은 영양제들과 약들을 받으며 주께

서 주신 소중한 육체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섬김의 부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안마 부스도 있어서 안마기구와 손으로 정성스럽게 CP 가족분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봉사자 분들의 손길이 귀하게 느껴졌다. 여성들을 위한 네일 부스는 역시 어디에서나 인기가 많은데 수양회 내내 그 인기가 식지 않았다. 이슬람권에서의 교회 개척자로서의 삶과 그 가족들의 수고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봉사자 분들의 마음이 큰 울림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향곡과 같았다.

둘째날 저녁에도 이스탄불 기도의 집 팀을 중심으로 한 현지 예배 사역자들과의 연합팀의 섬김으로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진수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 이후 즉석에서 소그룹들로 기도를 드리며 점점 더 하나가 되어 가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예배도 뜨거워지며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심을 느낄 수 있는 둘째날 저녁이었다. 집회가 끝나도 밤늦게까지 교체하고 기도하는 CP 들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계셨다.

셋째날 아침 식사시간, 같은 식당의 같은 메뉴였지만 더 밝은 모습들이 보이고 곳곳에서 터지는 웃음 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 만날 때 마다 서로를 안아 주고 격려 해 주는 모습이 첫째날보다 두배는 더 많게 보였다. 오전에도 각 언어권별 모임이 진행되었는데 어제 보다 더 진지하고 열심 있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연극을 통해 표현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점심 식사 후에 6대의 버스에 나눠서 탑승한 후 아스펜도스 경기장으로 향했다. 초대 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흘려진 곳, 사도 바울의 흔적과 전도자들의 발자취가 있는 아스펜도스로 들어가 간략한 역사적 배경을 듣고 이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각기 다른 언어지만 한 목소리와 한 영으로 드렸는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다. 2027년 이곳에서 열방을 축복하는 B2N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심고 돌아와 세번째 날 저녁 집회를 시작하였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김한요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은 후 CP 가족분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진행되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본을 보여 주신 것 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본을 닮아서 이 땅의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라는 말씀이 세족식을 통하여 현장에 있는 모두에게 전달되는 시간이었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고



세족식 이후 한명씩 허그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돌파와 터치를 주셔서 하셨음을 이후 간증들을 통하여 듣게 되었다. 세족식이 끝난 후 모두 동그랗게 원을 그려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회 장소를 빠져 나갈 때 스태프들과 성도님들이 모두 입구까지 나란히 서서 정성껏 준비하신 선물들을 드리고 나갈 때까지 박수와 격려와 허그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늘의 천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예행 연습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CP를 내려놓기 원했던 한 가정은 세족식을 통하여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고 주님께 재헌신 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 있었다. 세번째 날도 주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셨다.

네번째 날 아침은 감사의 풍성함이 더 많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곧 헤어질 아쉬움도 함께 공존한 시간이었지만 오전에 진행된 아흐멧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와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각자의 부르심에 자리에 돌아갈 힘과 은혜를 얻게 되었다. 3박 4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쉼과 새롭게 하심과 재충전을 얻고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는 CP 가족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다. 이 수양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이투스팀 디브리핑 자리에서 공통으로 고백한 말씀이 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권이요 영광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후에 CP 수양회를 또 허락하신다면 그 때에도 더 기쁘고 겸손하게 이 자리를 사모하며 참여할 것을 주님께 약속드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도구로 자격 없는 SWM과 베델교회, 열린문 장로교회, 코디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을 사용해 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수/양/회/스/케/치

천국의 시간을 맛 본 수양회였습니다

이하영 간사 (SWM Korea)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그리고 한국과 튀르키예 곳곳에서 수양회를 섬기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저희 팀은 오자마자 시설이 너무 좋아서 다소 어리둥절했습니다. 좋은 것에 대해선 오래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런 곳을 마련한 이유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준비 예배를 위해 허강한 선생님이 찬양을 맡아 주시고, 이재진 목사님이 각자가 섬김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앞두고 좋은 긴장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모두가 도착하기 전 각자의 사역 장소를 찾아 자리를 잡고 부스나 장비 같은 것을 설치하느라 분주했고, 베델교회와 열린문장로교회 팀 덕에 활기가 더해졌습니다. 미디어 팀은 도착하는 교회개척자마다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페르시아어, 아랍어, 터키어... 쓰는 언어가 제각각이었지만 어떤 이야기는 짧아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카이로스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B.A 학위까지 꿈꾸며, 은혜를 많이 받아 박사까지도 공부하고 싶다고 말한 자매가 그랬습니다.

이어 팀들이 하나 둘 호텔 로비로 도착하고, 길고 따듯한 포옹과 얼굴에 가득한 웃음이 있는 재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4년만의 수양회라, 부쩍 자란 동역자의 아들 딸의 자란 키를 가늠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른 지 감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 역시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체틴 장로님과 바히트 형제님은 지난 번 지진 구호 활동을 함께 해주기 위해 삼순에서부터 오랜 시간 트럭을 몰아 우리 팀을 맞아주고 여정 내내 동행하며 섬겨 주신 분들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분들을 뵈게 되자 저는 참을 새도 없이, 반가움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분들을 2023년 CES 사역에서 딱 한 번 만났기 때문에 유난스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진 피해의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이 마음 깊이 남았기 때문에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분들을 우리가 좋은 곳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무척 기쁘게 느껴졌어요. SWM 선교회와 함께한 지 일 년, 튀르키예에 딱 두 번 온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친구들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두 분만이 아니라 이곳에 온 모든 현지사역자들 각자 모두 특별한 순종을 품고 있지 않은가요? 저는 이곳이 왜 소중한 자리인지 금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이슬람권 세계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함께 하는 현지 사역자들을 귀하게 대접하고 섬을 드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련한 자리였던 거예요.

곧 도착할 새 일행을 맞으려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주 잠깐 동안, 저는 난민들을 섬기는 어떤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여쭙셨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난민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고 있나요?”
 “제가 알더라도 선생님처럼 알지는 못하지요. 말씀해주세요.”
 “난민이지만 난민증이 없는 사람들은, 신분증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서 병원에도 갈 수 없어요. 보험이 되지 않아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해요. 수술비를 감면해주어도 사후 관리가 어렵고요. 어떤 가정은 살 곳이 없어서 유엔 같은 단체에서 지원을 받지만, 그래도 일가족이 두 달 마다 호텔을 전전하는 형국이에요. 그 가정의 재산이라곤 슈트케이스 두 개가 다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쩌면 불쑥 세상이 너무 미워 화를 내고픈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렇게 모질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희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어떠한 위로가 되나요?”
 “그래야 하는데, 그게 맞는데……, 실제 삶의 고백은 그렇게

간단히 이뤄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목상 모임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사는 난민 집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미어지고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지요. 그 일을 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고된 삶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지지 않고 선포해야 하는 게 여기 모인 사람들의 사명이라면, 여기 있는 동안 짧게나마 힘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난민 출신 사역자들은 처음에는 오고자 했지만 이동 허가를 받지 못해서 결국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난민이 아니어도 비자가 자주 거절되고 거주증을 잘 주지 않는 형국입니다. 점심 식사 중에 지난 두 달간 튀르키예로 왔던 미국 선교사 가정이 추방된 건이 열 건이나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이 수양회의 스케치를 글로 적어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잘’ 써야 한다는 부담으로 고민하느라 손이 더뎠지만, 이 자리에 모시고 싶어도 여기 있을 수 없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알고 싶어했을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저에게 정말 신비한 경험은 제 송금 서류 속의 이름들을 이곳에서 실제로 만나면서 이뤄졌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저는 등대교회의 미하일 목사님이 그렇게 능청스러운 농담을 잘하는 분이신지 몰랐고, 엠레 사역자에게 그렇게 동그랗고 귀여운 눈을 가진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기도제목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된 대략적인 이야기를 이메일에서 보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악수를 나누는 것은,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선, 생경한 경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동역자들에게 제가 어떠한 친구가 되라고 부르셨는지, 단지 다달이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사무적인 일을 돕는 것 이상의 어떠한 연결을 우리 사이에 주셨는지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지원하는 교회들도 현지 교회 개척자들을 실제로 만나 교제할 기회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소중한 재정을 전달하고 서류가 오가는 일을 계속하게 된답니다. 주변 풍경도 제가 하는 일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직접 만나 보았기 때문에 저의 기도도, 엑셀 파일을 켜고 숫자들을 살펴보는 단순한 동작에 실린 저의 마음도 이전보다 조금 더 깊어지게 될 것을 압니다.

저녁 집회에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스탄불 기도의 집 멤버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함께 찬양 인도를 맡아 주었습니다. 특히 기도의 집 팀의 상준, 은혜 선생님께서는 저 역시 청년선교사 프로그램 간증으로 처음 알게 된 분들이었는데, 이 자리를 맡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 무척 의지가 되고 든든했어요. 근황을 드문드문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필요한 때에 강한 지원군을 보내주시는 것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저도 소형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며 화면 속에 예배를 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고 저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렌즈 너머가 아닌 그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이 땅에서 손을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형제들이 자랑스럽고 목소리를 모아 한 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영광스러웠지만, 성령께서 더 광활한 것, 더 역동적이고 새로운 곳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계획 안에, 그 큰 그림의 일부로 함께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연합 안에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한 조각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가 끝난 시간, 시차 적응이 덜 끝나 무척 졸리고 피





곤한 채로 비틀비틀 걷다, 지칠 줄 모르고 춤을 추고 파티를 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사역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 순간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이 진심으로 존경스러웠고, 그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는 교회의 섬기는 분들이 진심으로 감탄스러웠습니다. 가족 수양회가 없었으면 큰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첫째 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틀째부터는 특히 교회에서 섬겨 주신 부스 사역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을 준비한 부스도 있었고, 그간 수고해 온 자매들의 손을 색색깔로 꾸며주는 네일 아트 부스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현지 사역자들의 정보를 받을 때에, 초점이 나가 있거나 배경이 그다지 정리되지 않은 사진들이 오면, 화질이 낮아 교회에 전달하기에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요. 좋은 사진을 찍을 여건이 되지 않았던 이런 분들에게 가족들과 모여서 좋은 카메라로 스튜디오에서 찍은 간직할 만한 사진 액자를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진 부스가 준비되었습니다. 메디컬 부스도 있었는데, 수양회에 모인 사역자들 중에는 난민이 많고,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험이 없어 병원비를 아주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거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해서 이런 봉사도 무척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어권, 아랍어권, 터키어권 셋으로 나뉘지는 언어권 별 예배에선 파르하드, 에템, 엠레 사역자가 각자 찬양인도를

맡아 주었습니다. 제 송금 서류 속의 이름들이기도 했던 이들이 예배를 이끄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선, 생경한 경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동역자들에게 제가 어떠한 친구가 되라고 부르셨는지, 단지 다달이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사무적인 일을 돕는 것 이상의 어떠한 연결을 우리 사이에 주셨는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지원하는 교회들도 현지 교회 개척자들을 실제로 만나 교제할 기회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소중한 재정을 전달하고 서류가 오가는 일을 계속하게 된답니다. 주변 풍경도 제가 하는 일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분들을 직접 만나 뵈었기 때문에 저의 기도도, 엑셀 파일을 켜고 숫자들을 살펴보는 단순한 동작에 실린 저의 마음도 이전보다 조금 더 깊어지게 될 것을 압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의 말씀은 이진수 목사님이 나눠 주셨습니다. 말씀은 기도 시간으로 이어졌는데, 같은 지역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끼리 손을 잡고 둥글게 둘러 모여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배 장소가 순식간에 열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기된 얼굴과 진중한 목소리로 기도에 임하는 면면을 보자, 이들이 얼마나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그 불이 저에게도 옮겨 붙는 듯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를 잡고 한쪽 벽을 가득 채워 선 사람들을 보자니 새삼스레 이곳에 모인 많은 수에 압도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큰 그림의 일부로 함께하는 감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연합 안에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한 조각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에 우리는 언어권별 예배를 마치고 아스펜도스 원형 극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튀르키예에서 오래 사역을 해온 교회 개척자들도 처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 도시 터를 서로 다른 사역자의 아이들이 탐험을 나서듯이 뛰어다니는 것이 참 즐거웠고, 새로운 풍경이 우리 안에도 신선한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듯해 반가웠습니다.

짧은 소풍을 마친 우리는 식사를 하고 김한요 목사님이 말씀을 섬겨 주신 저녁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베델교회에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세족식이 이어졌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앉은 자리 앞에 모든 섬김이들이 기꺼이 무릎을 꿇고 소중하게 두 발을 감쌌습니다. 지난 며칠 간의 일정

이 하나같이 각별했지만, 이 세족식이야말로 이 수양회 기간에 있었던 모든 수고와 섬김을 받을 씻어주는 하나의 행위로 압축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동역자들과, 이곳에 모여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격려하고 발을 씻기는 사랑이 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한참이나 서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가는 자리까지 박수로 그들을 배웅하며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자람 없이 더 주고 싶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나누는 우리에게 더욱 벅찬 은혜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 그리고 변화의 필요와 도전

김성간 선교사(SWM USA)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Rest, Refresh, Recharge”라는 주제로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CP 가족 수양회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의 귀한 기도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수양회를 약 3달전부터 준비하고, 또 현지에서 진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기도동역자 여러분과 간단하지만 진솔하고 진지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감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수양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진행하게 하시고,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번째로 감사한 대상은 특별히 이번에 미국의 두 지역교회에서 CP들의 가족을 섬기기 위하여 튀르키예까지 오신 봉사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 180명의 CP가족들을 의료상담과 한방진료 및 치료, 여성봉사사역, 마사지 사역 및 한국음식체험 등의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시며, 수양회 마지막날 밤에는 모든 CP들의 발을 우리 주님의 섬김의 마음으로 씻겨주신 남가주 지역 한 교회의 약 40명이 넘는 봉사팀과 CP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래와 찬양, 영상, 게임과 프로그램으로 그들과 함께 뛰어놀며 섬겨주신 버지니아에서 오신 교회 봉사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번째로 감사한 분들은 이번에 우리 CP들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네분의 주강사님들이십니다. 힘든 교회개혁을 하는 CP들에게 농부와 같은 인내의 말씀을 심어주신 김용훈 목사님과 모든 사역에 원동력이 되는 십자가의 첫사랑을 간절하게 선포해주신 이진수 목사님, 복음을 전파하며 받는 고난의 영광을 말씀해주신 김한요 목사님, 그리고 문화적 차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강사들이 다룰수 없는 현지 사역자들의 구별된 삶의 요소, 심지어 흡연과 음주의 문제까지 적나라하게 교훈해주신 아흐멧 목사님의 말씀은 이번 수양회를 참석한 모든 CP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재충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외 현지에서 진행을 도와주신 이스탄불 M센터 팀과 현지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난 3개월 이상 여러가지 문제들과 도전과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며 모든 것을 품고 참고 인내로 준비해주신 한국과 미국의 본부 사역자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다음으로 감사한 분들은 이번 수양회를 위하여 저희와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현장에서 저희와 함께 진행해 주시고,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연합기도회 기도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변화의 필요성”입니다

변화의 필요... 변화의 필요의 그 첫 대상은 먼저 우리 CP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영적 성숙함에 대하여 강한 부담과 거룩한 근심을 주셨습니다. 제가 튀르키예에 갈때 마다, 주님께서 는 예외 없이 성경말씀을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봉독한 말씀이 이번에 제 마음에 주신 성경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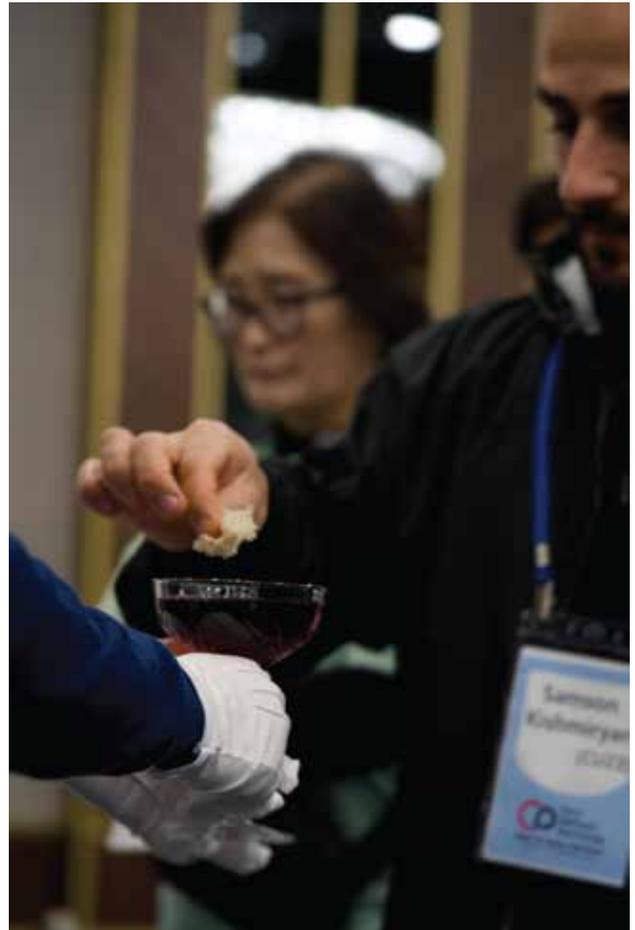
주시는 말씀은 주로 제 자신과 저의 사역을 대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물론 저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번 만큼은 제가 섬기는 우리 CP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제가 대신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CP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딤후 4:15-16)

처음 저희가 교회개혁운동을 시작하며 세우고 기대하는 바, 즉 터키에 건강한 교회 자립하는 교회, 재생산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까? 왜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나? 왜 교회가 재생산하지 못하나? 결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거룩한 근심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CP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함. 아이를 낳기만 하고 양육받지 못하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가 없지요. 제대로 건강하게 발육하지 않지요. 발육이 부족한 아이가 어떻게 건강합니까? 어떻게 자립합니까? 어떻게 재생산합니까? 말이 안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CP들의 숫자보다 CP들이 성숙함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우리에게서 거룩한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수양회를 마친 직후 Debriefing에서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한 지난 5년동안 CPM을 섬겼던 동역자들이 모여서 다같이 공감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CP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아이가 낳고 양육을 못받으니 제대로 발육이



않된 CP들과 그들이 섬기는 지역 교회들, 우리 주님의 깊은 관심은 CP들의 숫자보다 CP들의 영적 성숙함에 있습니다. 영적 성숙함. CP들의 성숙함은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건강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개척과 자립과 재생산을 위해서 CP들의 성숙함이 그 열쇠요 생명입니다. 제대로 양육 받지 못한 아이들은 건강할수 없고, 아이들은 아직 자립할수 없고, 더구나 재생산은 생각할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우리 CP들이 성숙함만큼 중요한 것은 교회개척 운동의 구조와 변화입니다. 이번에 오신 네분의 주 강사님들 중에 아흐멧 목사님께서 CP들의 가정을 말씀하시며, 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부모와 자녀를 비유하셨습니다. CP 여러분은 차의 앞바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뒷바퀴라고, 뒷바퀴는 앞바퀴가 가는대로 따라갑니다. 맞습니다. 뒷 바퀴는 앞 바퀴가 가는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차의 앞바퀴는 핸들을 돌리는대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차의 핸들, 영어로 “스티어링-휠”입니다.

우리 CP들을 세우고 협력하고 양육하고 후원하는 우리 교회 개척운동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대로, 그리고 변화를 원하시는대로 그 핸들을 틀어야 하겠습니다. 역시 수양회 직후 Debriefing에서 몇몇 분들이 나눠주신 주님의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 CPM/교회개척운동의 현재 구조는 재정후원이 필요한 튀르키예의 교인들을 SWM 앞에 줄서게 하는 것이 아닌 가라는 말이 나왔고, 그 모임에 있는 분들은 다 동감하는 거룩한 근심이었습니다.

세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도전”입니다. 도전!

변화의 필요에 따른 도전을 과연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분명한 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면, 튀르키예 교회가 좀 미성숙한 교회라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피로 사진 주님의 몸,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2017년 10월 튀르키예 안디옥에서 튀르키예 교회개척 운동의 마음을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 전달받고, 2018년 1월



부터 교회개척운동을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섬겨온 사람으로 약 5년이 넘는 시점부터 소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인지 저의 개인적인 근심인지는 모르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CP 가족수양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의 귀한 기도과 섬김과 사랑의 수고 가운데 너무나도 은혜롭고 성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쳐서 너무도 감사하지만, 저는 도전과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도전과 위기의 장에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연합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돌파와 부흥이 튀르키예와 중동과 이슬람권에 더욱 강력하게 임하도록, 그리고 교회개척운동을 통하여 성숙한 CP들과 건강한 지역 교회들이 현지에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양/회/준/비/팀/간/중

도끼를 갈았던 4시간

최재훈 팀장(SWM USA, CP 수양회 준비팀)

나와 이름이 같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좋은 말을 했다.

“Give me six hours to chop down a tree and I will spend the first four sharpening the axe.

나에게 나무를 자르는 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4시간을 도끼를 가는 데 쓸 것이다”

사실, SWM USA에서의 이 4시간은 2023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3박 4일 동안 280여 명의 CP를 섬기는 프로젝트가 김진영 선교사님에 의해 시작되어 버린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사역은 CP들의 공항 픽업이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신임이고, 모든 사역이 낯선 나에게는 이 일조차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참석자들의 도착 시간을 파악할 것이며, CP들을 어떻게 알아볼 것이고, 그들과의 소통은 무슨 수로 할 것인가? 더욱이 튀르키예 땅에서 말이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수양회를 보면, CP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일들을 분담하고 결국에 하나로 만들어야 할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김성간 목사님.

김성간 목사님을 도와 CP 현황을 조사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

며, 여러 세세한 일들을 진행해야 할 김호성 팀장님.

모든 미디어의 기록과 수집 및 편집을 맡은 김영진 팀장님.

그리고 모든 일정과 예약 등을 계획하고 도와 주시는 권케빈 선생님 등을 볼 때, 나의 일은 너무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본다.

거기에 이번에는 베델교회 팀들과 열린문장로교회 팀들이 힘을 모았다. CP들의 가족들의 Activities와 은혜를 위한 헌신들이 모이게 되었고, 수양회 기간 동안 아이들을 위한 섬김을 손수 자원하며 나선 것이다.

처음에 이 조합이 어떻게 이뤄질까 궁금했다.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하며 하나둘씩 준비해 나가시는 김성간 목사님의 리더십이 수양회 날이 다가올수록 그 진가를 발휘했다. 각자 해야 할 일을 확인하게 하고, 여러 번의 Zoom 미팅과 만남을 통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또한, 물품을 구입하고, CP들의 은혜를 위해, 진정한 쉼과 소생과 재충전을 위해 연습하고 점검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연합이 이루지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묵묵히 김성간 목사님 옆에서 꼼꼼히 세부사항들을 챙



기며 수양회를 준비해가는 김호성 팀장님의 전문가다운 수행능력은 그야말로 탄복할만 하다.

이렇게 나무를 자르기 위한 4시간은 길지만 짧은 시간들이었고, 이제 나무를 자르기 위해 안탈리아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는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각자 열심히 준비한 팀들, 그리고 CP 가족 수양회로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를 이루며 최선을 다해 섬긴 3박 4일이지만, 되려 섬김을 받은 그들보다 그들을 섬겼던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 감사의 수양회였다.

사실, 그곳 날씨를 파악하지 못하고 반팔 티셔츠를 입고 공항에 나가 4시간을 추위에 떨며 CP들을 기다리기도 했다.

비행기의 연착, 비행기를 타지 못한 CP... 영문도 모른채 그들을 기다리다가 공항을 수십 번 뛰어다니기도 했으며,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할 방법도 없어 공항에서 무한정 기다리면서 마음이 상한 적도 있었다. 더욱이 잘 해보려고 시도한 일이 의도된 대로 되지 않아 행사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던 일이 있다.

그런데, 아스펜도스 야외 극장에서 “좋은신 하나님”을 각 민족의 언어로 함께 고백할 때...

세족식을 하며 “이 수양회를 끝으로 사역을 그만 두려고 했는데, 새 힘을 얻고 도전해 보겠다”는 CP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한 것도 없는데 “수고했다”는 진심이 어린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는, SWM 신입인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음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

2024 CP 가족수양회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고(고전 3:9a),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롬 8:28) 귀한 시간이었다.

이 영광을 존귀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강/사/설/교

신분을 기억하라

디모데 후서 2: 1-7

김용훈 목사 (열린문장로교회)



목회자로의 부름은 영광스런 부름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많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만져주심과 힘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딛후 2장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사람을 세워 나가며 지칠 때 주님이 저에게 은혜로 새 힘을 주신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면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된 노사도 바울의 개인 편지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좀 낙심되고 흔들리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새힘을 북돋아주기 위하여 주시면서 바울이 강조하신 것은 “신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라, 경주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농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저에게, 특히 낙심될 때 지칠 때 가장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된 회자로서의 신분을 “농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목회자는 농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농부임을 기억함이 저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예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결과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충성을 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열매 맺는 것은 농부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농부의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도 이런 점에서는 농부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결과는 우리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과마저도 조정하려고 하면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충성만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을 다하는 삶의 결과로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 경주자의 삶과 달리 농부의 삶의 특징은 주위에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군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삶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관중들의 박수갈채가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꾸준히 인내하며 수고하는 삶입니다. 목회자의 삶은 농부의 삶과 그런 점에서 동일합니다. 사람의 찬사와 박수를 기대함이 없이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대의 성도들에게는 믿는 사람의 모범으로 존경의 대상이지만, 바울 자신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의 삶을 높이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을 따라 다니며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마저도 떠나갔고, 로마 정부의 눈에는 완전히 인생 패물의 제 1호였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는 바울 당시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험한 길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벌벌 떨며 살아도 세상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정승 집에 강아지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문상객이 없다.”는 한국의 속담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의 조언인지 모릅니다. 기억도 안 해줄 세상의 종노릇 해봐야 결국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30년을 체어맨으로 섬긴 한 선배 은퇴식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분의 은퇴를 아쉬워 하고 그리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주에 갔을 때 그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이름을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은퇴하면 금새 잊혀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억하고 그리워할 것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해주십니다. 조석으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말고 주님께 칭찬 받는 그 순간을 고대하며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며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혹시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년 감자 농사를 짓지만 소출이 좋지 않아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농촌에 선교사님이 가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의 삶에 관심을 두고 관찰한 선교사님은 농사의 경험이 없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감자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좋은 감자를 다 골라서 시장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겨울철 양식으로 사용하고 상품 가치가 없는 볼 품 없이 마르고 작은 감자를 다음 해 씨감자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가장 크고 좋은 감자를 잘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 해에 씨감자로 사용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해 수확 철에 상상 초월한 양의 감자가 수확이 되었고 모든 농부들은 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 인양 놀랐다고 합니다. 농사로 잔뼈가 굵은 농부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들은 왜 놀란 것일까요?

눈물로 뿌리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거두기를 기대하며 사는 어리석은 실수 범하며 살지 맙시다. 저의 33년의 목회 세월 중 15년 이상의 세월은 밭을 갈고 땅을 고르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 자신을 추수 때에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답답해 할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준비 될 때를 너보다 더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눈물로 뿌립시다.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확신이 있었기에 농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 같이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릴 때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

고 장차 맺을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때가 차면 열매가 맺을 것을 확신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줍니다.

목회자는 농부입니다.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뉴 올리온스에 살던 집에 물이 점점 차오르자 창문을 통해 헤엄쳐 나와야 했습니다. 두 아이를 등에 업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인근의 가장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홍수를 피하려 여러 사람들이 이 건물의 옥상에 피신을 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야 자신들이 교회당 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붕을 툭툭 두들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땅에 머물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옥상에 올라와 있던 한 여인이 또 다른 사실을 기억해 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다가 천탐 쪽으로 기어가더니 뽕쪽탐을 와락 꺼안으며 외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손자, 손녀를 구하실 줄 미리 알았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헌신을 귀하게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기도는 했겠지만 그들의 뿌린 섬김의 씨앗이 자신들의 손자와 손녀를 허리케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노인은 자신들의 희생적인 섬김을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희생을 담은 섬김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로 뿌린 섬김의 씨앗을 결코 헛되이 하시는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가 아니면 자녀의 시대이라도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감격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희생을 요구하지만,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삽시다.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우리의 섬김이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영광스런 부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

요한계시록 2:1-7

이진수 목사 (뉴비전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도 하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란다.

이 신앙의 표현과 celebration 이 우리가 함께 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다. 행복한 가정을 소유한 분들이 만만치 않은 사회생활도 잘 견디며 헤쳐가듯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간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언약의 공동체이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늘 당신의 교회에 와 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이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다. 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은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구원을 위한 사명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으로 넘치며, 주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교회 중 장자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에베소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에베소교회. 서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도시들에 위치한 교회들. 아마도 에베소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에베소교회로부터 다른 지역에 교회들이 개척되어 세워진 교회들로 이해한다.

에베소교회가 있는 에베소 도시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항구도시였다.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부 끝쪽이다. 1세기 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요지로 상업이 활발했고, 그래서 부와 문화교류가 많은 가운데 사치와 변영, 죄악과 쾌락이 넘치는 도시였다. 그 곳에는 아데미 신전 및 여러 우상 신전들이 많았다.

이곳을 바울이 2차전도여행 때 잠깐 방문했다가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2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웠다. 바울의 사역기간동안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행 19:11-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만큼 영적싸움이 심했던 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악한 영들보다 더욱 강한 능력을 보이며 바울의 메시지가 진리이고, 더욱 큰 권능을 가진 것임을 입증해 보이는 사건들이 많았던 곳이다. 그러면 행19:19-20절에서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고 했다.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상숭배하며 짐을 치고 술법을 행하는 일들을 그치고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던 마법책들을 불사르며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에베소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키워던 바울이다.

이런 에베소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계시록 말씀 전에 먼저 행20장 29절부터 주신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한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밀레도에 왔을 때,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며 준 주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 앞날에 다가오고 있는 박해와 어려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교회리더들에게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행 20:29-30). 한 마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신앙을 지키라는 당부였다.

그렇다. 세상은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하며..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 그런 세상을 분별하며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하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 에베소교회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교회이다. 그 내용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계2:2-3)

주님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크게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다.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지켜낸 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거짓된 자들을 배척한 것을 잘했다고 해 주셨다.

그런 에베소교회를 향해 한가지를 책망하셨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책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2:4-5)

주의 책망이 무엇이었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의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는 말씀을 하신다.

촛대에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는 생명과 진리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님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세상과 같이 어둠에 휩싸이게 내버려두겠다는 두려운 말씀이고, 교회가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무서운 경고이다.

주께서 에베소교회를 향해 주신 책망이 얼마나 중했으면.. 이렇게까지 두려운 결과를 경고하셨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다.

처음 사랑

우리가 주님을 처음 알게 되며 경험했던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말씀 중 하나가 롬5장 8절 말씀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생각할수록..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나.. 생각하게 만든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다.

죄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깨뜨리며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죄이다. 그런 죄를 짓는 죄인은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가로막고 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를 생각해 보라. 3년동안

주님을 따랐다. 배우고 훈련받았다. 특히 12제자들 가운데 리더로 그를 세워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 처형 받는 것을 보며.. 그런 주님을 부인했다. 모른다고 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이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다. 그를 사랑하셨다. 옛 삶.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를 찾아가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었냐”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베드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우셨다. 그렇게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제자로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이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탄생하게 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죄를 용납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십자가 사랑이다. 이 십자가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이다. 조건을 달지 않고, 그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불러 주신 공동체가 교회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13:34-35)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섬김 이후에 주신 말씀이다. 그 날밤..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몸소 섬김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며 그들에게 주님이 행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라고 하셨다. 이 사랑의 수고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시며 말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4:20-21)

하나님 사랑은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됨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결국 에베소교회를 책망하시며 되찾으라고 하시는 처음 사랑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 사랑이다.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세 가지 영역에서 주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첫째, 용기를 내어 먼저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러운 발로 유월절상에 임하는 제자들을 나무래지 않으시고.. 조용히 일어나 먼저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이와 같이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가는 것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하며 먼저 용서를



구하며,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자

내가 하는 일의 좋은 결과를 위해 다른 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분들의 사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다.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며,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랑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주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나. 위로와 격려,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주며 섬기는 것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마 10:42)

셋째,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자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자. 당연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판단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다. 그러나 심판 주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볼 때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자.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려고 힘쓰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불효막심한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십자가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받아야 한다. 시험 받으면 안된다. 그런데 시험받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실수와 심지어 잘못된 모습도 교회에서 보게 되기도 한다. 그럴때 내가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자. 십자가 사랑으로 받으면 된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 가면 된다. 그러면 주님의 속량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는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바꾸셔서.. 오히려 주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 주님은 교회를 향해 권고하십니다. 3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다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2:5)

여러분, 다시 생각하자. 기억하려고 하자. 무엇을? 주의 십자가 사랑이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이다. 그러며, 주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180도 회전이다. 그래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다. 그리고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다. 다시 행하라는 것이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어주신 처음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전13:1-3절 말씀을 읽어보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전 13:1-3)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도 귀하고 능력있는 영적은사들과 섬김이 아무 소용 없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그 결과는 모든 영적인 가치가 더욱 솟아나지 않겠나! 사랑.. 아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러면 구원의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게 해 준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안에.. 처음 사랑이 항상 살아 있고.. 그 처음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우리 안에 생동하는 처음 사랑으로 주의 구원의 기적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강/사/설/교

영광을 빛는 날재료

로마서 8:14-18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4-18절)

요한 웨슬리의 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복음을 모르다가, 개척자들이 외치는 복음, 그가 늘 설교하는 복음을 깨닫고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들으면, 난생 처음 들어 본 얘기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의 아버지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몰랐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병으로 투병하던 마지막 8개월간의 기간에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너무 기뻐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직전 여러 번 “내적 증거가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말하는 ‘내적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확실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분명한 확신 속에 거할 수 있을까요?

특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이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자는 복음을 오해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으로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죄만 짓게 하면 즉시로 기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 버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심을 하게 될까요? 나의 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죄를 짓게 된 것을 보니, 어쩌면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죄의 종노릇 하는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었으니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구원을 얻으려는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시작은 은혜로 하고, 연약함 속에 다시 행위구원 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행위원리는 스스로 착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일반적 고등종교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디 놀러갈 생각이었는데, 혹시 예배도 안 드리고 가면 큰 사고가 날까봐... 1부예배 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예배이어야 하는데, 교통사고 안나게 하는 무슨 액뎀하는 것 같은 '행위'의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성령의 증거"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15절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요한 웨슬리가 말하는 '내적 증거'는 그리스도인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 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행위구원의 원리를 적용할 때 오는 두려움입니다.

"사장실에서 호출입니다. 교무실에서 너 좀 오라" 이런 말을 들으면 대체로 무섭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어찌면 제가 부르면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반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도사님들 제 방에 한번 불러서 제가 직접 커피티를 타드린 적이 있는데, 벌벌 떨면서 마시더라고요. 제가 부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보다'라고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단 맞을 각오하고 제 사무실로 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부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 음성도 듣기 불가능하고...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느닷없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가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호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때 참 무섭습니다. 어떡하면 회복할까? 만회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두 번 속습니까?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역경 중에 특별히 기억해야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상속받는 공동상속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15절 b ...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부를 때, 쫓는, 무서워 떠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왜 부르시지?' 천연덕스럽게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사고를 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비상수단도 쓰시겠지만,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친구 목사가 자기가 낳은 자녀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아들 하나를 입양했는데 자기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을 때, 속상했다고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들답게 굴지 않을 때 가장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안하고, 혼자서 구석에서 조용히 있고, 자기가 부르면 놀란 눈을 하고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눈치를 보며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지배하는 것 같은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재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 증거를 확신시켜 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드러납니다.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 ...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지 않고, '부르짖는다' 했을까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상황이 부르짖을 수 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50회나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기 때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부를까요? 수도 없이 부릅니다. 계속 불러드립니다. 못 들으신 것 같으면 더 세게 부르짖습니다. 마치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듯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인격적 수준을 갖추고 나서 자격을 얻어낸 자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아버지를 한없이 찾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

양자의 영이라 하는데, 왜 딸이 아니냐면 그 당시 딸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딸에게도 상속이 되었다면 양녀의 영이라 틀림없이 썼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7절 ...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성취한 것과 일반으로 보시고, 상속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예외 없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누리게 된 특권입니다. 네, 전부입니다. 의로워짐, 입양, 용서, 화해, 회복, 죄를 씻어주심, 죄와 싸워 승리, 영생의 약속, 구원의 확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감.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영광을 빛는 고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소유하며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스테이크 시키면 따라오는 것이 있듯이(취소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특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17절b ...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것은 고난입니다. 이것이 왜 따라오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의 논리적 전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로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전개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에서 그토록 영화스럽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편한 천국을 떠나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우리의 영광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18절 ...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은 고난으로 빛어지는 작품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맺혀지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영글어 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의 관계가 단순히 순서적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고난 받고 내일의 영광. 이런 식은 아닙니다. 고난과 영광은 신비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걸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린도 후서 4:16-18)

영광을 만드는 날재료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혹시 겪었던 어려움, 진절머리 내지 마세요. 영광을 빛는 날재료입니다. 작은 아픔은 별거 아니겠지 하며 낭비하지 마세요. 화룡점정이라고 멋진 걸작품에 점을 찍는 영광의 날재료일지 모릅니다. 쓴 뿌리로 놔두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밝음으로 일어서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고, 머리카락이 바뀌고, 정 말 예수님처럼 빛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보겠는가, 질문하는 분을 만납니다. 제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서로 만나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오마이... 역시 당신이군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C/P/간/증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브라힘 다드카 (오르두 교회)

안탈리아에서 열린 축복된 수양회와 그곳에서 만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긴 섬김이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작지만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이곳은 도전으로 가득하고 축복과 격려로 가득합니다. 저는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이란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지금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양회 첫 날, 예배를 드리며 메시지를 듣는 중 '당신은 농부로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수확을 하실 때 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용기를 잃게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어려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동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교인과 청소년을 위한 그림과 음악 수업을 진행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 몇 명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후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 중 한 명은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머지 성도들에게 교회에 오지 말라고 권유하는 등 정말 마음 아픈 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목사님들과 섬기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 분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고 제가 지치지 않고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격려 받았습니니다.

안탈리아에서 열린 수양회에서 제가 받은 큰 축복 중 하나는 한국인 목사님이 일본 교인들과 함께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간증하는 것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좋은 역사와 과거가 없습니다. 예배 장소에 있던 이라크 형제, 자매들과 이란인인 저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란과 이라크는 매우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어렵고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많은 기억은 이라크 전투기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대피소로 달려가 몇 시간 동안 머물렀고, 밖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1년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TV로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작은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전쟁이 한창일 때 그 작은 공동묘지가 아주 커져서 매일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대거 이장되었습

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동묘지에 묻으며 가족들은 많이 울었고, 어머니는 기절하고 기절했습니다.

이라크 형제, 자매들은 아마도 모두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탈리아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늘을 향해 찬양의 찬송을 울리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여러 도시에서 왔습니다. 이 도시들 중 일부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저는 큰 용기를 얻고 열정적으로 도시로 돌아와 형제, 자매들을 열심히 만나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중에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많이 나누고 있으며, 저는 매일 주님 안에 있도록 교인들을 최대한 격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십과 재충전, 그리고 도전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신 많은 섬김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C/P/간/증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압바스 (아마샤 아가페 교회)

저를 어두운 삶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축복의 중심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신성한 가족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깊어짐에 따라 교회에서의 봉사하는 수준도 달라지고 있었고, 제 마음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샤 지역의 아가페 교회에서 CP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사역에 필요한 힘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이번 수양회에 참가했습니다. 수양회에서 첫 번째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를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사역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듣고 나니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잘 준비된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격려와 도전을 받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 받은 또 다른 축복은 다른 사역자들이 오늘날 제가 하는 사역에 존재하는 걱정과 문제를 신뢰와 희망, 그리고 지혜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사역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었고, 저는 새로운 힘과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제 사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양회 기간 중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 저를 준비시키시고 담대하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활용하여 이 도전에 대처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환경과 넘치는 섬김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섬/김/이/간/증

튀르키예 땅에 교회 종소리가 울려퍼지기를 소망하며

김선희 성도(베델교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언어도 다르고 그분들의 환경도 모르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다가가며 섬기고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은 그분들을 만나며 금방 사라졌습니다. CP들과 가족들은 활기가 있었으며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또 SWM 선교회의 세심한 돌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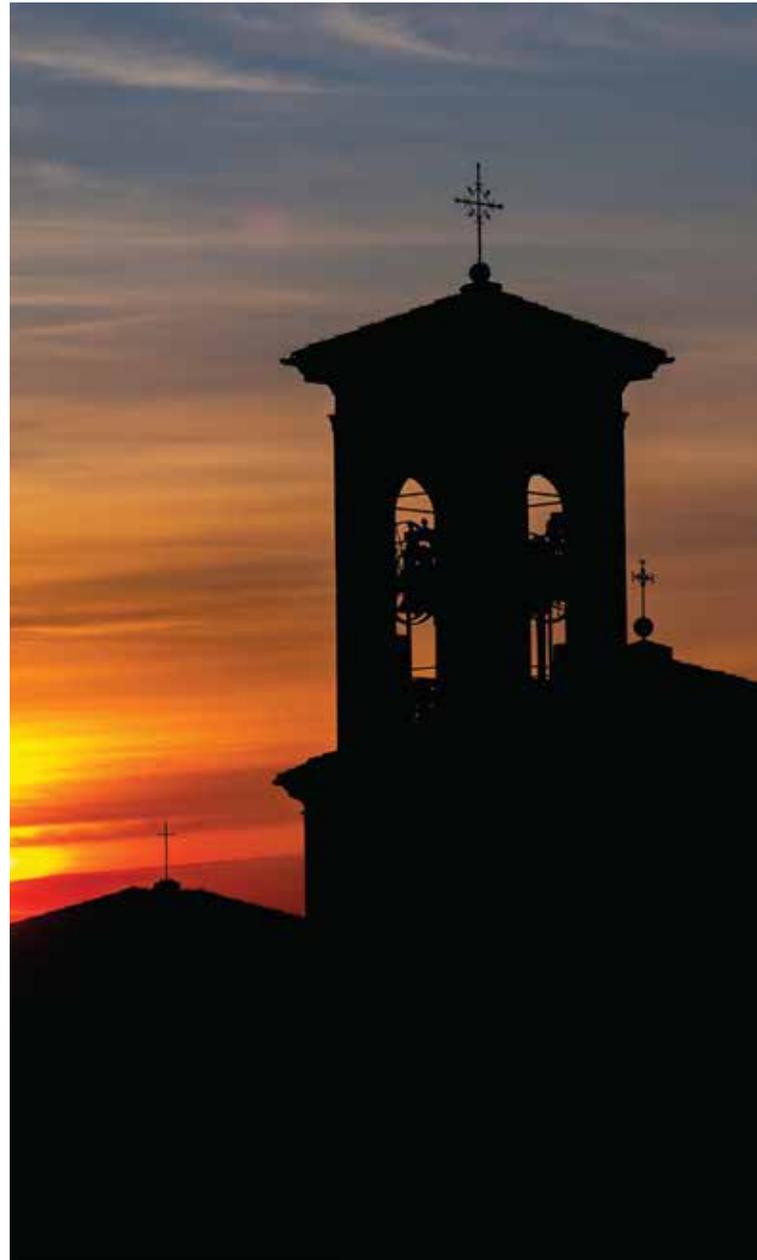
비록 짧은 3박 4일이었지만 편한하고 좋은 환경과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배와 교제는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들의 사역에 큰 도움과 격려를 주며 함께 동역하는 SWM에 큰 감동을 받고, 가슴이 뭉클하여 눈물이 나며 감사했습니다.

자유시간에는 베델 봉사자들이 준비한 곳에 그들이 스스로 없이 찾아와 본인들의 필요에 도움받고 교제하며 그들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온 나의 CP와 반갑게 만나 대화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튀르키예에 나의 믿음의 가족이 생김으로 그곳에 관심이 더 생겼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는 복음을 위해 험한 길을 걸을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받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험한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했던것 처럼 CP분들과 SWM 선교회가 협력하여 언젠가 튀르키예 땅에 교회 종소리가 울려퍼지길 기도합니다.

너무나 귀중한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SWM 선교회와 베델교회 그리고 열린문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WAY MAKER

김두환 장로(베델교회)

나그네 인생 믿음의 여정 가운데 베델공동체에서 9박 10일 동안 튀르키예에 CP 수양회와 비전트립을 허락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준비모임을 통하여 사도바울이 종횡무진하며 복음을 전하던 그 아름다운 땅이 황폐되고 허물어진 모습을 볼 때에 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CP 수양회를 통해 다시한번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튀르키예 그 척박한 땅에 여러나라의 난민들로 인해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쉬지 않고 전해지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입니다. 또 이를 보고 튀르키예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오직 주의 성령의 바람으로 그곳을 다시 부흥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열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째날, 김한요 목사님의 "죽으러 가라"는 메세지는 너무도 강렬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험한 길을 힘겹게 걸어온 CP들에게 목사님은 죽으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설교 후에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세족식을 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형제의 발을 씻기며, 피곤하고 지친 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다시 그 길을 가는데 죽으러 가기를 다짐하며 그

발걸음을 딛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걷잡을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러 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죽는 것은 섬기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들만 죽으러 가는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으러 가야한다는 생각에 또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어찌보면 순교와 상관 없는 것 같은 환경, 순교는 핍박이 심한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도 순교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을 뜻하는 초대교회의 선진들의 믿음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날 튀르키예 목사님의 설교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어 하고 삶이 예배고 삶이 선교라 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온다고 하신 말씀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생각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초대교회의 자취를 따라 비전트립을 했습니다. 무너지고 폐허된 곳들을 돌아보며 남은 것은 돌무더기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많은 주의 제자들의 믿음의 발자취는 볼 수가 없고 무너진 곳에 돌들만 있는 것을 보며 우리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주의 일을 잘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나도 언제 무너진 돌들과 같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면 저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동굴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킨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닌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이드 선교사님이 주신 "초대교회에 길을 묻다"(알렌 크라이더)를 읽으며 초대교회가 나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저희는 초대교회 증인이 증거하는 메세지와 삶의 간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증인과 증인의 삶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질문들에 나는 숙제를 들고 온 기분입니다. 거주민으로 나그네 처럼 살고 있는가? 나그네로 거주민 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이루어진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에 작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화의 나그네 인생길이 되게 하소서.

한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가길 소원하며,

연합하여 그 땅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

이석배 집사(배델교회)

튀르키예에서 열린 CP(Church Planter)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의 약 40 여 명의 봉사자들은 거의 세 달 정도 매주 함께 모여서 강의도 듣고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처음가보는 나라 튀르키예에 대한 궁금증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터키로 출발한 저희는 약 20시간을 날아가 안탈리아라는 지중해 안에 있는 도시에 도착했고 집을 숙소에 올려놓자마자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팀에 속해 있어서 수양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CP분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이었는데, 버지니아에서 온 열린문 장로교회와 연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Toddler 로부터 고등 학교 학생들까지 한 40 여명이 모였습니다. 영어로 소통하기는 불가능했기에 현지 선교사님들이 통역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뛰고 춤추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처음에 소극적이고 어색해 하던 아이들도 점차 마음 문이 열려 함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라크나 시리아 또는 터키의 여러 국경지대에 인접한 나라들로부터 오게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CP) 이주로 자연스럽게 튀르키예로 이주하게 되어 살고 있지만 몇 고등학교 학생들의 얘기로 크리스천으로 이슬람땅에 살아 가는 것이 녹록치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당당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 모두가 아이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아버지가 친 자녀들을 위해 구하는 것처럼 모든 선생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 심지어 극 이슬람 교도들은 이런 크리스천을 죽이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 여기는 그 나라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안전과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이 예상되어 더욱 간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가듯 단 며칠을 만나 함께하며 가질 수 있는 제 마음의 간절함보다 수천 수만배의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의 증거가 십자가였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앞으로 튀르키예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무리 거센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시대가 캄캄해도,우리가 보기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신실한 하나님의 소수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어 오신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사랑하심은 이제 이 땅 튀르키예에서도 힘있게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수양회 마지막날 CP 들을 위한 세족식이 있었는데 참가자보다 봉사자수가 부족해서 다음 세대팀이었던 저도 세족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해진 시간안에 두 분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소 분주하리라 예상이 되어 고민이 되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시작되었고 모든 봉사자들은 CP 들이 앉아 있는 의자 뒤에 서서 그 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시에 따라 세족식이 시작되어 저는 CP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발을 대야에 넣고 씻기려고 발을 만지는 순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리는 한 음성이 있었는데 "내가 귀하게 쓰는 발이다". 그 뒤로 어떻게 두 명의 발을 다 씻겼는지 잘 모르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발을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씻겨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마 제가 발을 씻어드리는 동안에 그 CP 분들에게 주님은 "내가 귀하게 쓰는 손이다" 라고 말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세족식이 모두 끝나고 모든 CP 들과 봉사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위해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수양회 기간동안 한번도 마주친적 없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한가지 아는 것은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었고 더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내 손으로 씻겨드린 그 발들은 튀르키예 온 땅을 누비며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그들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이슬람 여러 나라들에 충만히, 그리고 힘있게 전해질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튀르키예 땅 곳곳은 역사적으로 많은 유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보며 저한테 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길이 아닌 곳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제는 돌 무더기들만 남아있는 고대 신전들에서도 그리고 그 화려했던 신전 근처 어귀에서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잘못된 길을 찾고 또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당신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명한 소리들이 튀르키예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교회의 교훈을 통해 교회로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디인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동굴속과 땅 속에서 생활하던 당시 교인들에게 신앙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임이 분명했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배일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거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켜낸 신앙으로 인해 현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에 우린 더욱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선교 일정은 매일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일정들과 방문한곳들이 기억에 많이 남지만 함께 가신 베델 교회의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CP 들과 여러날 함께 생활하며 분명 당신들도 힘드실텐데 웃음 잃지 않고 상대를 대해 주시며 특별히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컨디션이 안 좋은 동료분들을 챙겨주시는 성숙한 분들과 함께 보낸 10 여 일간의 일정은 앞으로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복음의 역사속에 10 여일의 튀르키예 선교 일정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 masterpiece 속에 빠져서는 안되는, 작지만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함께 하신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임명신 권사(베델교회)

이번 CP(church planter)수양회는 그동안 여러번의 선교에 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많은 첫경험들을 통해서 은혜가 더 깊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양회 몇달전부터 매주 토요일 새벽예배후에 모여서 CP들의 기도제목과 담당하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파트별로 모여 의논하고 연습하며 모든분들이 열심히 참석하고 준비했습니다. 한두분씩 정해진 각자의 CP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9시에 같이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떠난 수양회에서 도착 첫날, 전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그동안 사진으로만 통해서 본 나의 CP와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알아보게 되면서 얼마나 반기웠는지 모릅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그분들은 내가 왜 그렇게 아는 척하고 반가워했는지 이해할수 없었겠지만 그분들도 반갑게 웃으시며 맞아주셨습니다. 수양회 내내 나의 눈은 항상 그분들을 찾게되고 더욱 기도하게 되었고 세족식에서도 그 아내분을 하게되었는데 시작하기전부터 그분은 "thank you"를 끊임없이 말씀

하시면서 진심으로 마음깊이 우리나라오는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세족식 후에 꼭 껴앉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때 범벅되었던 우리의 눈물은 언어나 생김새나 환경은 다르지만 주안에서 형제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으로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우리 나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잘 알지 못하는 터키어로 찬양하면서 그룹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제 마음을 꽉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제가 담당했던 전혀 생소한 분야 네일 아트가 어떻게 은혜롭게 사용될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던 저의 부족한 판단에 역시나 틀림없으신 우리 주님은 초보의 네일 아티스트들 권사님들과 저를 통해서 우리 CP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함을 주셨습니다. 서툴고 부족하나 예쁘게 칠해진 손톱을 보고 기쁘게 웃으며 작은 수고에 큰감사를 표현해 주셨던 한분 한분들이 저 또한 감사했습니다.



수양회의 주제였던 Rest, Refresh & Recharge 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새 정이 들어버린 그분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CP분들의 각자의 다른 삶의 발자국 속에서 한걸음 한 걸음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셨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기뻐하셨을 그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니 언어나 문화 그 모든 것이 달라도 주 안에서 그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 없고 그런 부족한 저를 통해서 어떻게 그 크시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전해도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었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저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CP 자녀분들과 건장한 터키 청년들이 타게되었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는 CP 자녀분들을 따뜻하지 않은 시선으로 말없이 한참을 쳐다보다 내린 터키 청년들, 그런 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던 우리 CP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그룹의 청년들 모두를 생각하며 오직 기도하는 것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녹록치않은 현실과 부딪치며 그럼에도 주님이 삶의 중심이 되신 그분들의 믿음이 오히려 저를 깨워주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시간을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과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이/간/증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함께 얻은 섬

김지현 집사(열린문장로교회)

작년 8월에 장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기력이 잘 회복되지 않아 사역들을 내려놓고 쉬려고 하는데 남편이 은혜가 떨어진 것 같으면서 선교를 다녀오라고 권했습니다. 몸이 아파 쉬는 게 당연한데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말하는 남편이 야속했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남편의 입술을 빌려 말씀하시는지도 몰라 상황이 열리면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 날 어와나 커맨더께서 전화하셔서 터키 미션을 함께 갈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순종하며 팀에 합류해 보니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함께 섬겼던 전도사님과 디렉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실수와 각자의 개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는 팀장님의 넉넉하고 여유로운 성품 덕분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다들 손발이 척척 맞아 진행이 순조로워 준비하는 과정부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선교사님들과 베델교회 집사님들과 과도 어색하지 않고 바로 친근해졌고 다들 열정적이어서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것처럼 각자의 역할들을 알아서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팀이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고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며 기쁨으로 함께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날 부끄러워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적으로 찬양, 율동과 게임에 참여했고 스킷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는 부모님과 떨어져 쉬지 않고 울던 갓난아이들까지 차분해지고 어린아이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



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보게 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힘들고 지칠 때 무조건 다 내려놓고 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힘을 누리고 회복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에게 성령 안에서의 쉼(Rest)을 누리게 하시고 생기(Refresh)를 찾게 하시며 새 힘(Recharge)을 얻게 하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SWM 사역 및 일정

SWM 선교회에서는 2024년 초반에 다음과 같이 사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합비전트립

연합비전트립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있습니다.

- 기간: 2024년 4월 22일(월) - 30일(화)
- 장소: 튀르키예, 조지아/아르메니아, 그리스/이집트, 요르단/이라크
- 기도제목: - 비전트립을 통해 튀르키예와 이슬람권을 향한 관심과 잃어버린 영혼과 그 땅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교회 개척자들을 섬기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소서

현지 목회자 성경/신학교 (Bible & Theological Studies, 약칭 BTS)

- 기간: 5월 28일(화) - 6월 7일(금)/ 10월 29일(화) - 11월 8일(금)
- 장소: 튀르키예 아코이 수양관
- 기도제목: - BTS 수업 일정동안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성령충만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 난민 사역자 학생들이 여행 허가증을 다 받아 수업에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과 스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강의하는 교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으소서
- BTS 과정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 터키와 중동의 복음화를 위해 말씀을 잘 훈련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3차 Oasis Learning Center Summer English Camp

- 기간: 2024년 6월 17일(월) - 29일(토)
- 장소: 쿠르디스탄 두혹 시리아/예지디 난민 캠프
- 기도제목: - 쿠르디스탄 두혹의 어린이를 사랑으로 섬겨줄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소서
- 어린이들이 영어를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킹덤 아웃리치/비전트립

- 기간: 2024년 10월 18일(금) - 26일(토)
- 장소: 튀르키예, 그리스, 이집트, 쿠르디스탄/요르단, 조지아/아르메니아
- 기도제목: - 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킹덤 아웃리치와 비전트립에 참여하여 튀르키예와 이슬람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소서

KBP USA 이사회

- 기간: 2024년 8월 24일(토) - 26일(월)
- 장소: ANC 온누리교회 (김태형목사)
- 기도제목: - KBP USA이사회에 모든 이사들이 참여하여 이 시대에 튀르키예와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KBP의 역할을 깨닫고 동참하게 하소서

SWM USA 이사회

- 기간: 2024년 8월 26일(월) - 29일(목)
- 장소: ANC 온누리교회 (김태형목사)
- 기도제목: - SWM USA이사회에 모든 이사들이 참여하여 이 시대에 튀르키예와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연합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연합기도운동(UPM/United Prayer Movement)를 통하여 튀르키예와 중동 및 이슬람권에 진정한 영적 돌파와 부흥의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교회개척운동(CPM/Church Planting Movement)을 통하여 성숙한 교회개척자들과 건강한 지역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2.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시대의 소식들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고 예비하게 하소서
3. 하마스와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속히 종결되게 하소서. 이 전쟁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4. 무슬림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슬람의 거짓의 영과 두려움의 영과 폭력의 영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참 진리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 3:11)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5. 지난 1월 CP가족수양회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후 교회개척운동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변화와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 순종하게 하소서
6. 여러가지 역경과 도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SWM 선교회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부르심과 3가지 사명(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교회운동)에 착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7.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소서!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